

메시지 5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기 위해 교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

성경: 계 2-3장

I.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은 말씀하는 사역이다.

- A.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말씀하시며, 제사장 봉사를 수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히 7:25, 계 1:16, 20, 2:1상, 7, 비교 말 3:1, 히 1:2.
1.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요 1:1, 14)이시자 하나님의 말씀하심인 아 들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고 설명하고 정의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18절).
 2.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전쟁의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말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말해 준다 — 계 19:13.
- B.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 거니심으로써 각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신다. 이렇게 교회들을 순방하 심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잘 알게 되시고, 그런 다음 자신이 보신 것에 따라 우리에 게 말씀하신다 — 계 2:1, 7.
- C. 거니시는 면에 있어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말씀하시는 면에 있어서 그분은 그 영이시다. 일곱 서신 각각의 시작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계 2:1, 8, 12, 18, 3:1, 7, 14), 마지막에서는 바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2:7, 11, 17, 29, 3:6, 13, 22).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말 씀하시는 영이 되셨다.
- D.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의 본질은 금등잔대들을 정돈하시고 채우시는 것이다.
1. 구약에는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심지의 검게 탄 부분을 잘라 냄으로 이 등잔들을 정돈하였고(출 30:7), 이에 더하여 기름을 공급하였다(27:20).
 2. 정돈하는 것은 더 이상 밝게 타오를 수 없는 검게 탄 심지 끝 부분을 잘라 내는 것이다. 기름을 더하는 것은 그 영을 공급하는 것이다.
 3.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일곱 등잔대들을 정돈하시면서, 필요 없는 것들 과 빛 비춤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 내고 계신다. 동시에 그분은 등잔대들이 밝게 타오르도록 하는 필요한 기름을 공급하고 계신다.

II. 주님의 말씀하심은 종교를 잘라 내 버린다 — 계 2:9.

- A. 오늘날의 기독교는 유대교화되었다. 유대교와 교회는 네 가지 주된 요점, 곧 성전과 율법과 제사 장들과 세상에 속한 약속들에 있어서 많은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다.
1. 유대교에는 물질적인 성전이 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다. 유대교에서 경 배자들과 경배 장소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경배 장소가 없는데, 이것 은 경배 장소가 경배자들이기 때문이다 — 엡 2:21-22, 요 4:24, 고전 3:16, 6:19, 고후 6:16.
 2. 유대교에는 일상생활을 위한 원칙들의 표준인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생명의 법이신데, 이 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 히 8:10.
 3. 유대교에는 제사장들이라는 중재하는 계급이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하 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들, 곧 거룩하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다 — 롬 15:16, 계 1:6, 벰전 2:5, 9.
 4. 유대교에는 세상에 속한 약속들과 땅에 속한 축복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하늘에 속한 약속 들과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 — 엡 1:3, 갈 3:14, 비교 마 16:24.

- B. “왜냐하면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외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 롬 2:28-29, 비교 빌 3:3, 갈 3:7, 14, 16, 29.

III. 주님의 말씀하심은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 내 버린다 — 계 2:12-17.

- A. 사탄의 권좌는 사탄이 거하는 장소이자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인 세상에 있다. 세상적인 교회는 세상과 결합했기 때문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거한다 — 계 2:13, 비교 요 12:31-33, 14:30.
- B. 세상적이고 타락한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킨다. 발람의 가르침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떠나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서 빛나가게 하여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한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믿는 이들의 기능을 파괴하여, 주님의 몸이 그분을 표현할 수 없도록 만든다. 앞의 가르침은 머리를 소홀히 여기게 하고, 뒤의 가르침은 몸을 파괴한다 — 계 2:14-15.
- C. 교회가 세상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이러한 이기는 이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거하며, 이 지성소에서 특별한 몫이신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매일의 공급으로 누린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세상적인 교회의 타락을 이기며 주님의 특별한 몫을 누린다면, 장차 올 왕국에서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상이 되실 것이다 — 계 2:16-17.

IV. 주님의 말씀하심은 변절한 교회의 악한 누룩을 잘라 내 버린다 — 계 2:18-29.

- A. 여자 이세벨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여자와 동일하다. 그 여자는 (악하고 이단적인 이교도의 것들을 상징하는) 누룩을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소제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고운 가루 안에 넣었다.
- B.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큰 창녀인데, 이 여자는 신성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혼합시킨다. 아합의 이교도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 변절한 교회의 예표이다 — 계 2:20, 왕상 16:31, 19:1-2, 21:23, 25-26, 왕하 9:7.
- C. 우리는 바벨론의 원칙, 곧 변절한 교회의 원칙을 경계해야 한다. 어중간하고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 이든 바벨론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 비추심이 필요하다 — 계 3:16-19, 비교 민 6:1-9.
1. 바벨론(히브리어로 ‘바벨’)의 원칙은 벽돌로 상징되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무언가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의 노력이다 — 창 11:1-9, 고전 3:12.
 2. 바벨론의 원칙은 위선이다 — 계 17:4, 6, 마 23:25-32, 6:1-6, 15:7-8, 요 5:44, 12:42-43.
 3. 바벨론의 원칙은 자신을 과부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원칙이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은 현 시대에서 과부인데, 이것은 그들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께서 이곳,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다 — 계 18:7, 비교 고전 16:22, 계 22:20, 눅 12:34, 딤후 6:6-10.
 4. 바벨론의 원칙은 창녀의 원칙이다. 바벨론의 목적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다.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는 자신의 남편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가져서는 안 된다 — 창 11:4, 계 3:8, 고후 11:2, 고전 1:10.

V. 주님의 말씀하심은 미지근함을 잘라 내 버린다 — 계 3:14-22.

- A.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 계 3:15-16.

B. 라오디게아는 일그러진 빌라델비아이다 — 계 3:14-22.

1. 형제 사랑이 사라질 때, 빌라델비아는 즉시 ('라오디게아'의 의미인) '사람들의 의견'으로 바뀐다.
2.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미지근함과 영적인 교만이다. 영적인 교만은 역사(歷史)로부터 비롯된다. 어떤 사람은 한때 부유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유하다고 생각한다. 주님은 한때 그들에게 공물을 베풀었고,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 실재를 잃어버렸다.
3.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지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라오디게아는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 무엇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없다. 라오디게아는 이전의 자신의 영광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잊어버린다.
4. 우리가 계속해서 빌라델비아의 길을 가고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함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사 66:1-2, 57:15.

VI. 등잔대를 정돈하는 일에 더해서 제사장들은 또한 등잔에 기름을 채웠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은 모두 그 영으로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 비교 속 4:11-14.

- A. 요한계시록은 삼일 하나님께서 강화되신 것을 계시한다(계 1:4, 3:1, 4:5, 5:6). 이 강화되심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 하락한 교회를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와 잔치이신 그분 자신에 대한 누림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 B.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계 2:7)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곧 최상의 내적 충만이다.
- C.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계 2:17).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은 채워지고 공급받는 것이다.
- D.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계 3:20)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을 통하여 내적 충만이 일어난다.

VII.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봉사로 말미암아, 종교와 세상적인 것들과 악한 것들과 미지근함이라는 어두운 모든 것이 잘려 버린다. 또한 그 봉사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와 하늘에 속한 잔치의 하늘에 속하고 신성한 요소가 우리에게 공급된다. 이 하늘에서의 사역의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한 보석으로 만드는 신진대사적인 변화이다 — 롬 12:2, 고후 3:18.

- A. 주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봉사와 돌봄의 목표는 우리를 이기는 이들로 만드는 것이다 — 계 2:7, 11, 17, 26-28, 3:5, 12, 20-21.
- B.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와 하늘에 속한 잔치에서 얻는 자양분은 등잔대를 구성하는 신성한 요소가 된다.
- C. 이와 같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한 등잔대가 될 것이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는 이기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등잔대를 구성할 것이다. 한 등잔대는 결국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이다.

VIII.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진할 수 있도록 세계정세를 안배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늘에 속한 풍성한 신성한 요소를 공급하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들을 이기는 단계에 계속 있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필요하다 — 행 5:31, 히 7:25, 8:2.